

松隱 朴翊의 인적 연계망과 사상

최영호*

〈목 차〉

- I. 머리말
- II. 박익의 인적 연계망
- III. 박익의 사상과 그 성격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여말선초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한 松隱 朴翊(1332~1398)의 사회적 연계망과 사상을 분석하였다. 원천자료는 『松隱先生文集』 및 『國譯 松隱先生文集』, 『慶州府尹先生案』, 박익의 묘소에 발견된 유물·유적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집안은 아버지 박영균 때부터 이미 중앙관료를 역임하면서 수도 개경에 거주하였으며, 박익 때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문인관료지식인으로 활동하였다. 박익은 사촌 동생 桃隱 朴文彬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개창을 반대하며 밀양지역에 은거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넷은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춘 문인지식인으로, 조선왕조에서 관료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박익의 직계는 다양한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박익의 외가와 처가 가운데는 綾城具氏·星山裴氏와 같이 고려말기부터 이미 중앙의 고위관료를 배출한 명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본 논문은 2013년 11월 22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민회관에서 개최한 <송은 박익선생의 생애와 벽화묘> 국내학술대회(성균관유도회경상북도 주최, 성균관유도회청도지부·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주관)에서 『松隱 朴翊선생의 인적 연계망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개국공신으로 활동한 인물도 있었고, 관료지식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杜門洞으로 은거하여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문인지식인도 있었다.

박익은 문학적·사상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과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鄭夢周(圃隱)·李穡(牧隱)·吉再(治隱)·李在弘(桐隱)·李瓊(二憂堂)·朴宜中(貞齋)·卞季良(春亭)·卞仲良(春堂)·李原(容軒) 및 金九容(楊若齋)·李崇仁(陶隱)·朴文彬(桃隱) 등의 관료·문인지식인, 李之蘭과 같은 무인, 上人(법명 미상)·道欽 등의 승려지식인들과 정치·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그와 교류한 문인지식인의 대부분은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몽주·이색의 문인이거나 정몽주·이색·길재와 학문적 성향과 사상적 견해가 밀접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문인지식인들도 있으며, 조선왕조에서도 계속하여 활동한 관료나 조선왕조의 개국공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익은 정몽주·이색과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그의 사상은 현실적으로 성리학을 주목하였으며, 당대 성리학적인 위상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祖宗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소양을 자신의 정치·사회적 실천덕목으로 삼는 한편, 자신의 아들에게도 계승하였다. 그의 성리학적인 실천덕목은 은둔과 출처를 통일적으로 파악한 이색과 일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천덕목으로 박익은 공양왕 때 관직진출과 낙향을 반복하면서도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며 조선왕조의 관직을 거부하였다.

박익은 성리학적인 사상과 함께 불교 및 도교까지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그의 불교적 관심은 불교의 禪思想에서 영향을 받은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생활종교로도 수용하여 유·불 간의 조화도 도모하였다. 이로써 박익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유·불, 또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탄력적 문인지식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 경향은 정몽주나 이색, 그리고 길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제어 : 박익(朴翊), 송은(松隱), 태시(太始), 송은집(松隱集), 벽화묘, 성리학, 불교, 도교, 절의(節義),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길재(吉再)

I. 머리말

고려왕조실록 등을 원천자료로 삼아 조선 세종~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에는 조선왕조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이 개입되면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기도 하였다. 특정 인물의 기록도 제외되거나 침삭된 현상도 보인다. 때문에 관련 유물·유적과 문집류 및 보화류 등은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면, 당대 실존하면서 활동한 인물과 함께 그 당시의 역사·문화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핵심적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려사』의 편찬과정에서 행적이 누락된 인물 가운데는 松隱 朴翊의 경우도 포함된다. 박익은 충숙왕 복위 원년(1332)부터 태조 7년(1398)까지 생존·활동하면서 고려왕조에서 東京判官 겸 勸農防禦使(중5품),¹⁾ 司宰少監(중4품),²⁾ 禮部侍郎(정4품)·禮曹判書(정3품)³⁾ 등을 역임하고 中書令⁴⁾으로 추증되었으나, 조선왕조의 개창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관료·문인지식인이다. 그러면서도 『고려사』·『고려사절요』, 『태조실록』 등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사서에는 관련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행적이나 활동이 『麗史(고려사)』나 『國史』라는 관찬사서에 기록되었을 듯한데도 『고려사』·『고려사절요』에서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박익의 행적과 가족관계 및 사상 등은 『慶州府尹先生案』 및 『松隱先生文集』과 함께 최근에 발굴된 그의 벽화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록유산과 유물·유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상당부분 복원할 수 있다.

1) “判官·朝奉郎兼勸農防禦使 賜紫金魚袋朴翊 丙寅九月到任 丁卯八月十八日 政盛上京”(『府尹先生案』: 『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2) “朝奉大夫·司宰少監 朴翊墓”(동아대학교 박물관, 『朴翊墓誌石』,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 44·122쪽).

3) 김광철, 『여말선초 松隱 朴翊의 생애: 조선건국기 낙향인물의 한 사례』, 『考古歷史學志』17:18,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12, 157쪽; 박홍갑, 『朝鮮初期 密陽 在地勢力의 淸道移住와 定着過程: 密陽 朴氏 嘯阜公派를 중심으로』, 『백산학보』70, 2004; 『瓶齋 朴河澄研究』, 경인문화사, 2006, 8~9쪽.

4) 圃隱, 『贈密陽朴中書』,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46~148쪽; 春亭, 『請諡號』,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74~177쪽; 黃喜, 『墓表』,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84~191쪽.

5) 皇甫仁, 『遺墟神道碑續誌』,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99~205쪽; 春亭(변계량), 『請諡狀』,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74~176쪽.

박익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다⁶⁾가 2000년대에는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⁷⁾ 2000년 10월 경상남도 밀양군 청도면 고법리에 소재한 박익의 묘에서 고분 벽화와 誌石 등의 귀중한 유물·유적이 발견되면서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익의 가계와 정치적 행적·활동 및 현실인식과 대응방식, 그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 및 벽화에 대한 고고미술학적 성격과 복식 및 장묘문화 등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박익의 역사·문화적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박익에 대한 역사·문화적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의 인적 연계망과 함께 사상적 성격도 그 과제의 하나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그의 친인척의 실체와 함께 정치·문화적 연결고리를 구축한 인적 연계망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정치·문화적 사상과 더불어 일상적 신앙도 진단할 것이다. 특히 그의 정치·사상적 토대가 된 성리학적 이념과 함께 일상적 신앙이 된 불교적 성격도 진단하며, 仙道 내지 도교적 관심도 살펴볼 것이다. 분석과정에서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는 한편, 『松隱先生文集』(1839년 간행)·『國譯 松隱先生文集』 가운데 당대의 자료와 더불어 그의 벽화묘에서 발굴된 유물·유적을 교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로써 그의 역사·문화적 행적과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李殷相, 「序(1977)」,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88~94쪽; 民族文化研究所編, 「松隱集(朴翊)」, 『嶺南文集解題』 民族文化資料叢書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522쪽.

7) 김영재, 「박익 묘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韓服文化』4-4, 한복문화학회, 2001; 曹五順·劉珠利, 「密陽 古法里 古墳壁畫에 나타난 服飾 研究」, 『패션비즈니스』5-2,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1; 김광철, 앞의 논문, 2002; 앞의 논문, 2002.12; 안희준, 「松隱 朴翊 墓의 壁畫」, 『考古歷史學志』17-18,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동아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고부자, 「密陽 朴翊 墓 壁畫 服飾 研究」,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李英子, 「密陽 古法里 壁畫를 통해 본 茶禮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홍갑, 앞의 논문; 앞의 책; 김재현, 「밀양지역의 분묘문화: 고법리벽화묘를 중심으로」, 『石堂論叢』3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鄭義道, 「松隱 朴翊先生墓出土遺物의 考古學的 解釋」, 『先史와 古代』33, 한국고대학회, 2010; 이동주, 「밀양 고법리 벽화묘에 대한 연구」, 『文物研究』19,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2011.

II. 박익의 인적 연계망

송은 박익은 원간섭기를 거쳐 여말선초라는 정치·사상적 변동기를 겪으면서 활동한 관료·문인지식인으로, 절의와 은둔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그의 정치·사회적인 인적 연계망이 편향되거나 단순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박익은 14세기 당대에 다양한 출신성분의 인물들과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활동하였다.

우선, 가족과 혼인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익의 벽화묘에서 발견된 誌石이 먼저 주목된다.



도 1. 박익 벽화묘의 誌石 銘文⁸⁾

『朴翊誌石』의 정면에는 다음 銘文이 음각되어 있다.

- 1행 : 朝奉大夫司宰少監
- 2행 : 朴翊墓長子融二子昭三子昕
- 3행 : 四子聰長女適孫奕二女適曹

⁸⁾ 동아대학교 박물관,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 44·122쪽.

4행 : 功顯三女適孫億
 5행 : 永樂庚子二月甲寅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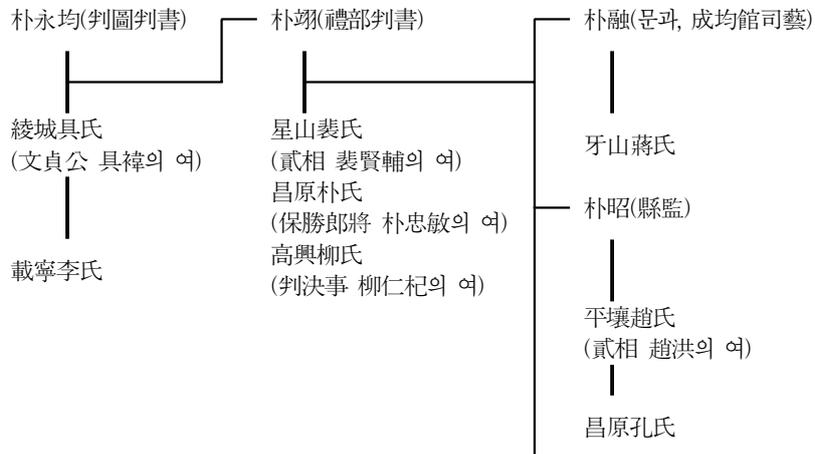
그 원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조봉대부·사재소감 박익의 묘이다.
 (박익의) 맏아들은 박용이고 둘째 아들은 박소이며 셋째 아들은 박흔이며 넷째 아들은 박충이다. 맏딸은 손억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조공현에게 시집갔으며 셋째 딸은 손억에게 시집갔다.
 영락 연간 경자년(세종 2, 1420) 2월 갑인일(16일)에 장례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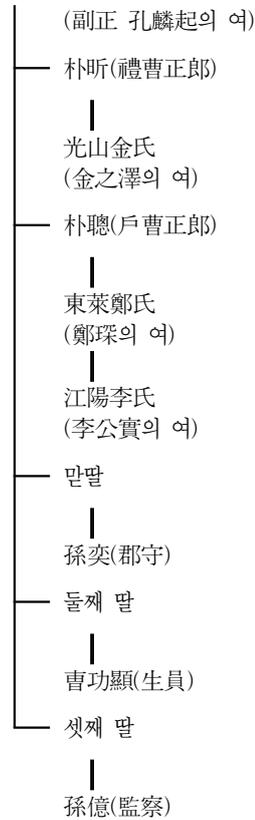
본 지식의 명문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족 관계는 아들이 박용·박소·박흔·박충으로 4남이며, 딸이 손억·조공현·손억과 각각 혼인한 3녀이다. 이 가운데 셋째 아들 박흔은 송은의 世系圖에서 朴調라고 표기되어 있어 개명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지식과 박익의 가계도 및 집안 관련 자료¹⁰⁾ 그리고 기존 연구¹¹⁾를 참조하여 그 가족 및 혼인 관계를 박익의 상·하 1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밀성박씨 박익의 가계와 혼인



9)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622·627쪽.
 10)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621~634·265~315쪽.
 11) 김광철, 앞의 논문, 2002.12, 175~176쪽 ; 박홍갑, 앞의 책, 7·15~21쪽.
 한편 박익의 사위 가운데 朴功顯과 孫億의 혼인관계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나(김광철, 앞의 논문), 이를 바로잡았다.



※ 본 가계도는 기존 연구와 더불어 『문과방목』 및 『朴翊誌石』(『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44·122쪽) 등도 참조하여 작성.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朴翊誌石』 자료를 기준으로 확정. 박용의 생모는 창원 박씨이나, 그 이외 형제·자매의 생모가 확인되지 않음.

박익의 아버지 朴永均은 고려시대 정3품의 版圖判書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박영균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등과 같은 관찬사서에 그의 활동이나 승진 내력이 전혀 찾아지지 않다. 때문에 박영균은 실제로 그 관직을 역임하기 보다는 하급관직을 지냈거나 관직을 역임하지 않았다고 짐작한다.¹²⁾ 그러면서도 박영균의 아들 박익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黃禧가 지은 박익의 墓表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박영균은 판도판서의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¹³⁾

박영균은 그의 처가가 중앙의 고위관직을 지낸 綾城具氏리는 사실에서 중

¹²⁾ 김광철, 앞의 논문, 2002.12, 153쪽.

¹³⁾ 박홍갑, 앞의 논문, 7~8쪽.

양관직을 역임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박영균의 처인 능성 구씨는 沔州(지금의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에 살다가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典理判書(정3품)를 역임하고 공민왕 때 沔城君으로 책봉된 具榮儉의 손녀이다.¹⁴⁾ 그의 장인은 寶文閣大提學을 역임하고 文貞이라는 시호를 받은 문신관료 具偉(具偉)이다.¹⁵⁾ 이로써 박영균은 관료를 역임하면서 당시의 수도인 開京(지금의 개경직할시)에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은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관직을 역임하였다. 박익의 과거급제 여부는 현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익을 고려후기의 과거 합격자로 이해하고 있다.¹⁶⁾ 그 시기는 공민왕 2년(1353) 병과에 급제하였다고 파악¹⁷⁾하기도 하나 사실과 차이를 보이며, 공민왕 때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로 진출하였다¹⁸⁾고 한다. 이처럼 박익이 과거를 통해 관료를 역임한 이후, 그의 장남 朴融과 박용의 장남 朴震도 조선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였다.¹⁹⁾ 특히 박용은 태종 8년(1408) 式年試에서 丙科로 급제한 이후 세종 때까지 司諫院正言(정6품)·刑曹佐郎·吏曹佐郎·典祀判官(중5품)·吏曹正郎(정5품)·江原道敬差官·成均館司藝(정4품)를 역임한²⁰⁾ 문신관료이다. 한편, 집안의 기록에는 朴昭도 생원시에 합격하여 安陰(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음면)의 縣監을 지내고 禮學을 연구하며 冶隱·陶隱과 교류하였고, 朴昕(朴調)도 진사시에 합격하고 禮曹正郎을 지내며 성리학을 연구하였다고 하며, 朴聰도 학문을 좋아하고 戶曹正郎을 역임하였다고 한다.²¹⁾

14) 『고려사』 권114, 具榮儉傳 및 권39, 공민왕 5년 5월 정유. 물론 공민왕 5년(1356) 5월 구영검은 劄輒세력이 제거될 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산이 몰수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구영검의 집안은 그 가세가 일시나마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곧 이어 공민왕은 몰수한 그의 가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의 시신도 수습하게 하였으므로 그 집안의 가세는 다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 5년은 박익이 25세 때(김광철, 앞의 논문, 153쪽)로 박영균이 이미 결혼한지 상당 기간이 지났던 시기이다. 때문에 박영균은 구영검이 관료로 있을 때 혼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 『國朝人物考』 권36, 蔭仕, 具壽永 및 『具壽永墓誌銘』(『국역 국조인물고』, 구수영 : <http://terms.naver.com/entry>, 이하 전자 주소 생략) ; 『國朝人物考』 속고8, 乙巳, 具寂 및 『具寂諡狀』(『국역 국조인물고』, 구성).

16) 文暉鉉, 『해제』,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5쪽 ; 김광철, 앞의 논문, 2002.12, 155~156쪽 ; 박홍갑, 앞의 논문, 8쪽.

17) 文暉鉉, 앞의 책, 15쪽.

18) 김광철, 앞의 논문, 156쪽.

19) 『國朝文科榜目』, 太宗戊子榜 ; 김광철, 앞의 논문, 172쪽 ; 박홍갑, 앞의 논문, 7쪽.

20)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1월 임오 및 권28, 태종 14년 12월 갑술 및 권33, 태종 17년 윤5월 정축 ;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정월 신축 및 권29, 세종 7년 8월 정묘.

21) 柳台佐, 『行狀』,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265~315쪽 ; 李秉遠, 『遺事』, 『國譯 松隱

이처럼 박익의 직계는 그의 아버지 박영균 때 이미 관료를 역임하면서 수도 개경에 거주하였으며, 박익 때부터는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과거급제를 통해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익 자신은 고려왕조에서 벼슬을 하였으나, 조선왕조에서 관료생활을 거부하고 절의를 지켰으며, 그의 사촌 동생 桃隱 朴文彬도 牧隱 李穡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하다가 밀양지역에 은거하기도 하였다.²²⁾ 그러면서 박익의 아들 4형제는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춘 문인지식인으로, 박익의 유언에 따라 조선왕조에서 관료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박익 직계의 혼인관계도 관료집안이나 문인지식인들을 그 통혼권으로 삼고 있었다. 아버지 박영균은 綾城具氏 및 載寧李氏, 박익은 星山裴氏·昌原朴氏·高興柳氏, 그의 아들 넷은 牙山蔣氏·平壤趙氏·昌原孔氏·光山金氏·東萊鄭氏·江陽李氏와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딸 셋은 孫奕(郡守), 曹功顯(生員), 孫億(監察)에게 각각 시집을 갔다. 이 가운데 특히 박익의 어머니와 그의 처 가계가 주목된다.

박익의 어머니는 綾城具氏 具禕의 딸이다. 具禕는 典理判書를 역임하고 沔城君에 책봉된 문신관료 具榮儉의 맏아들로 具偉라고도 하며,²³⁾ 寶文閣大提學으로 文貞이라는 시호를 받고 門下政丞으로 추증된 문신관료이다.²⁴⁾ 구위의 아들은 密直副使 具鴻·具成老²⁵⁾ 등이다. 구성로는 우왕~태조 때 同知密直司事·開城尹을 거쳐 商議中樞院使를 역임하면서 威化島回軍功臣과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문신관료이다.²⁶⁾ 이에 비해 밀직부사 구홍의 號는 송은 박익의 號와 동일한 松隱이며, 고려왕조의 멸망 때 杜門洞에 들어가 절의를 지킨 문인지식인으로 文節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하였다.²⁷⁾ 이로써 박익의 외가

先生文集』, 報本齋, 1999, 335~348쪽; 李彙寧, 『墓碣銘並序』,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349~382쪽.

22) 牧隱, 『訪密陽兩先生[一指桃隱諱文彬 先生從弟]』,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9~140쪽.

23) 『고려사』 권114, 具榮儉傳 및 권39, 공민왕 5년 5월 정유.

24) 『國朝人物考』 권36, 蔭仕, 具壽永 및 『具壽永墓誌銘』(『국역 국조인물고』, 구수영); 『國朝人物考』 속고8, 乙巳, 具寂 및 『具寂謚狀』(『국역 국조인물고』, 구성).

25) 『고려사』 권135, 우왕 11년 9월; 『國朝人物考』 권36, 蔭仕, 具壽永 및 『具壽永墓誌銘』(『국역 국조인물고』, 구수영); 『國朝人物考』 속고8, 乙巳, 具寂 및 『具寂謚狀』(『국역 국조인물고』, 구성).

26)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4월 정미;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10월 정사 및 권4, 같은 왕 2년 8월 을유 및 권10, 같은 왕 5년 11월 경신; 『國朝人物考』 권36, 蔭仕, 具壽永 및 『具壽永墓誌銘』(『국역 국조인물고』, 구수영); 『國朝人物考』 속고8, 乙巳, 具寂 및 『具寂謚狀』(『국역 국조인물고』, 구성).

27) 『디지털칠곡문화대전』: 『칠곡향토문화백과』,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성씨·세거지/성씨/능성

는 여말선초 중앙의 고위관료를 배출한 집안으로 문인지식인 계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처남 구홍은 그와 함께 고려왕조에 끝까지 절개를 지킨 문인지식인 이기도 하였다.

박익의 妻家 가운데는 星山裴氏가 주목된다. 그의 첫 번째 장인 裴賢輔는 裴玄甫라고도 하며, 衛尉寺少尹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의 아들 裴克廉은 고려말부터 조선 태조 때까지 密直副使·門下左侍中을 역임하고 星山伯으로 책봉된 고위 문신관료이다. 공양왕 2년(1390) 4월에는 위화도회군공신이 되었고, 趙浚·鄭道傳과 함께 공양왕을 폐위하고 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개국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神德王后 康氏의 소생인 李芳碩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관여하였다가 뒤에 태종에 의해 폄하되기도 하였다. 시호가 貞節이다.²⁸⁾ 이 집안 역시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중앙의 고위관료를 배출하였다.

이처럼 박익의 외가와 처가 가운데는 고려말기부터 이미 중앙의 고위관료를 배출한 명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개창에 적극 참여하여 공신으로 활동한 인물도 있었고, 문인지식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杜門洞에 은거하여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인물도 있었다. 그의 사위 가운데도 문인지식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사위 生員 曹功顯이나, 조선시대 관리들의 규찰 등을 담당한 司憲府의 監察을 지낸 셋째 사위 孫億이 문인지식인이다.

다음으로, 박익의 정치·사회적 연계망이다. 그는 교우 및 문학적 교류관계도 다양하였다. 『국역 송은선생문집』에는 그와 교류한 인물들이 확인된다. 그의 생존 당시에 활동하면서 박익과 시나 글을 교류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㉞문인지식인 : 鄭夢周(圃隱)·李穡(牧隱)·吉再(治隱)·李在弘(桐隱)·李瓊(二憂堂)·朴宜中(貞齋)·卞季良(春亭)·卞仲良(春堂)·李原(容軒).
- ㉟무인 : 李之蘭.
- ㊱승려지식인 : 上人·道欽.

이들 이외, 문인지식인 陶隱 李崇仁 및 惕若齋 金九容도 포은·박익과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²⁹⁾ 물론, 그의 사촌 동생 桃隱 朴文彬도 밀양지역에 은거하면서 牧隱 李穡 및 박익과 함께 교류하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박익은 생존

구씨 : <http://chilgok.grandculture.net>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구홍 : <http://encykorea.aks.ac.kr>.
²⁸⁾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 4월 임인 및 권46, 공양왕 4년 4월 정사 및 7월 신묘.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11월 계묘, 門下左侍中 星山伯 裴克廉의 줄기.
²⁹⁾ 圃隱, 『贈密陽朴中書』,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46~148쪽.

당시 문인지식인과 무인 및 승려지식인들 등 다양한 출신성분들과 정치·사회적 인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교류 인물 가운데는 정몽주·이색·길재·이승인·이재홍·이경과 같이 고려왕조에 끝까지 절의를 지킨 문인지식인들도 있으며, 박의중·변계량·변중량·이원·이지란처럼 고려왕조를 이어 조선왕조에서도 계속하여 관료로 활동하거나 조선왕조의 개창에 적극 참여한 개국공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무인출신의 이지란을 제외한 문인지식인들은 정몽주·이색의 문인이거나 정몽주·이색·길재와 정치적·학문적으로 교류하였으며, 모두 성리학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었다.³¹⁾ 이로써 박익은 조선개국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한 문인지식인들과 문학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 대다수는 정몽주·이색·길재 등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은 교류 인물 가운데 포은 정몽주 및 목은 이색과 특별히 긴밀하였다.

(송은 박익은) 신라국의 후손이며 우리나라의 賢人이다. 아침저녁으로 서로 따르면서 圃隱 및 牧隱과 친밀하였다.³²⁾

박익은 정몽주·이색과 아침저녁으로 서로 교류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제로 박익은 정몽주와 시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정몽주의 祭文을 짓기도 하였다.³³⁾ 더구나 포은 자신은 박익을 소중한 인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東風歇馬問山家/ 봄바람에 말 멈추고 산 속의 집을 물었더니
花落鳥啼夕照多/ 꽃 지고 새우는 석양별 바른 곳이라네
吾友平生同契厚/ 나의 벗 평생을 같이한 정
清談不覺月西斜/ 청아한 이야기 속에 달 지는 줄 몰랐네³⁴⁾

30) 牧隱, 『訪密陽兩先生(一指桃隱諱文彬 先生從弟)』,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9~140쪽.

31) 길재(이색·정몽주·權近의 문인), 이재홍(두문동의 한 인물), 이경(포은·목은·야은과 교류), 김구용(이색·정몽주·이승인 등과 교류), 이승인(이색·정몽주와 교류), 박의중(이색의 문인), 변계량(이색·권근의 문인), 변중량(정몽주의 문인), 이원(정몽주의 문인). 徐居正, 『李原碑銘』; 『國朝人物考』권1, 相臣, 李原.

32) “羅國姓孫, 海東賢人. 昕夕相從, 圃·牧同隣”(卜春亭, 『神道碑告由文』,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91~199쪽).

33) 松隱, 『祭圃隱文』,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61쪽.

34) 圃隱, 『附次』,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10~111쪽.

포은은 송은 박익을 방문하고 그를 평생을 같이 한 벗으로 평가하였다.

平生親舊曉星疎/ 평생을 같이한 친구들 새벽 별처럼 성긴데
老圃如今歎索居/ 늙은 포은은 오늘날까지 한가롭게 살고 있는 것을 탄식하네
陶隱西遊若齋死/ 도은은 서쪽으로 귀양갔고 약재는 죽었으니
舍人却憶朴中書/ 나는 박중서만 생각하게 되네.³⁵⁾

정몽주는 밀양지역에 은거한 朴中書(박익)에게 시를 보내면서 박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색도 박익과 긴밀하게 지냈다. 시를 서로 교류하는 한편,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밀양에 있는 두 박선생을 방문하다(한 사람은 桃隱으로 이름이 朴文彬이며 송은 선생의 사촌 동생이다).³⁶⁾

두 박영공께서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어 주시길래 賦를 지어 드리다.³⁷⁾

목은 이색은 밀양지역에 낙향하여 머물고 있던 송은 박익과 그의 사촌 동생 桃隱 朴文彬을 직접 찾아가서 마주하며 시와 賦를 주고받고 있다. 이로써 박익은 이색과도 긴밀한 관계³⁸⁾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은 불교계의 승려지식인들과도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범명을 확인할 수 없는 승려지식인 上人, 그리고 道欽이다. 박익은 이들 승려지식인에게 시를 주기도 하였으며, 특히 범명 미상의 고승인 上人을 직접 찾아서 시를 남겨 주기도 하였다.³⁹⁾

如何背聖門/ 어찌하여 유교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木鐸聲中老/ 목탁 소리 속에 늙고 있는가
削髮誤平生/ 머리 깎아 평생을 그르치더니

³⁵⁾ 圃隱, 『贈密陽朴中書』,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46~147쪽.

³⁶⁾ 牧隱, 『訪密陽兩朴先生[一指桃隱, 諱文彬, 先生從弟]』,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9~140쪽.

³⁷⁾ 牧隱, 『兩朴令公設小酌賦呈』,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41~142쪽.

³⁸⁾ 목은 이색과 隱字號를 가진 송은 박익과의 관계는 기존 연구(도현철,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해안, 2011, 134~135쪽)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색과 교류한 은자호를 가진 문인지식인들 가운데는 桃隱 朴文彬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³⁹⁾ 松隱, 『贈上人』,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20~121쪽.

空空弄月皓/ 공공하며 밝은 달만 희롱하는구나⁴⁰⁾

花雨蕭蕭六六天/ 꽃비는 쓸쓸하게 온 종일 누리에 내리는데
一邊月一邊煙/ 달이 밝아 오다가도 안개가 서리네
能言廉介能言理/ 열반의 경지를 잘 말하고 진리도 잘 말하니
不是塵不是仙/ 이야말로 세속도 선계도 아니네 그러
有一道欽成道味/ 한 사람 도흠만 도를 이루었으니
亦無後亦無先/ 앞에도 뒤에도 없었다네
平生身世觀音世/ 한 평생 이승에서 관세음보살만을 섬기며
足踏雲手掬泉/ 발로는 구름을 밟고 손으로는 샘물만 움켜 마시고 살아 왔구려⁴¹⁾

박익은 유교를 소양을 가졌다가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승려지식으로 활동하던 도흠에게 자신의 섬섬한 심정을 피력하는 시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박익은 승려지식인 도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흠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위의 시에서 그의 출신성분은 유교를 공부하다가 불교계로 출가한 유·불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박익의 직계는 관료집안이나 문인지식인들과 통혼권을 맺고 있었고, 그의 정치·사회적인 인적 연계망도 성리학적 지식이나 소양을 가진 문인지식인 및 불교계의 승려지식인, 무신관료와 구축되어 있었으며, 특히 정몽주·이색과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박익은 사회적 관계에서 탄력적이면서도 현실정치에서 개혁적 지식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박익의 사상과 그 성격

박익의 정치·사회적인 인적 연계망은 그의 사상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우선, 박익은 현실정치에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고 실천하였다.

精垂星日/ 정기는 별과 해에서 드리워졌고
氣鍾山海/ 기상은 산과 바다에서 뭉쳤도다

40) 松隱, 『贈道欽』,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6~137쪽.

41) 松隱, 『又』,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7~138쪽.

扶植綱常/ 강상을 붙들어 심었으니
 特立千載/ 천년의 세월 우뚝하리라
 猗歟德容/ 아름답도다 덕스러운 모습
 理學之宗/ 성리학의 으뜸이네
 忠孝益篤/ 충과 효로 더욱 돈독해지고
 道義惟恭/ 도의로 오직 공손하네
 瞻仰淑像/ 아름다운 모습 우러러보면
 孰無興起/ 누구들 존경심 일어남이 없으랴
 玉潔水清/ 옥같이 깨끗하고 얼음처럼 맑으니
 不可尙已/ 이보다 더할 수 없으리라⁴²⁾

高尚之氣/ 고상한 기품은
 桐江之類/ 동강의 무리같고
 淸淨之節/ 청정한 절의는
 潯陽之士/ 심양의 선비 같네
 功著北藩/ 전공은 북쪽 변경에서 빛났고
 道明東土/ 도학은 우리나라를 밝혔네
 生生氣質/ 씩씩한 기질에
 凜凜威儀/ 늠름한 위풍일세
 千載之宗/ 천년의 근원이요
 百世之師/ 백세의 스승이로다
 學溯濂洛/ 학문은 염락의 연원을 따랐고
 門成鄒魯/ 문도는 추로를 이루었네
 秉彝好德/ 타고난 성품 좋은 덕은
 理學之祖/ 성리학의 근원이라
 精粹文章/ 순수하고 깨끗한 문장은
 於千百祀/ 천년 백년 빛나리⁴³⁾

박익과 동시대에 살면서 성리학적인 학문사상과 문학을 서로 교류한 治隱 吉再와 春亭 卞季良은 박익을 ‘성리학의 으뜸(理學之宗)’, ‘성리학의 근원(理學之祖)’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로써 14세기 후반 당대의 관료·문인지식인들은 박익을 우리나라 성리학의 祖宗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박익의 성리학적인 지식과 소양이 상당하였다는

42) 治隱, 『畫像贊』,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65~167쪽.

43) 春亭, 『又』,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67~170쪽.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학문적 역할이나 위상을 다시 주목할 수 있다.

공(송은 박익)은 …문장과 도덕이 우리 동방을 뒤덮었으니 명현이 아니겠는가. 공은 아들이 넷인데 효자이며, 또한 며느리도 넷인데 효부이므로 정려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수 많은 선비들이 크게 칭찬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공이 돌아가시는 날 아들 넷을 불러 유언하였다. “선천과 후천이 있으니 애비와 자식은 시대가 다르다. 나는 왕씨의 혼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이씨의 세상에 있게 되어 이미 신하가 되었으니 충성을 다하여라.” 공께서 맑고 깨끗한 절의를 삼는 것은 여하튼 성리학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었다. …벼슬아치와 선생들이 송은의 묘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군들 그의 충절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건문 2년 백룡(경진년 : 정종 2년, 1400) 음력 4월 상순에 長水 黃喜가 묘표의 글을 지었다.⁴⁴⁾

長水黃氏 龐村 黃喜도 박익을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실천한 문인 지식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왕 원년(1389) 9월 지공거 柳源과 동지공거 李種學이 주관한 과거시험에 金汝知 등과 함께 합격⁴⁵⁾한 이후 고려왕조에서 成均館學錄을 지내고 杜門洞에 은거하다가 조선 태조 때 성균관학관으로 임명되어 세종 때까지 領議政을 지낸 황희⁴⁶⁾는 박익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리학적 관료 지식인이다. 더구나 황희의 과거합격 때 동지공거를 맡은 이종학이 목은 이색의 아들⁴⁷⁾이므로 황희는 이색과 친밀한 교류 관계를 가진 박익의 학문적 역량과 정치·사회적 활동행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황희가 박익을 성리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문인 지식인으로 인식하고 그의 문장과 도덕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익은 여말선초 우리나라의 성리학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황희는 박익의 성리학적 소양과 지식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덕목으로 실천되었으며, 그의 아들과 며느리

44) “公…文章道德，蓋我東方，名賢也哉。公有子四孝，又有四婦之孝，闡揚旌閭之恩，濟濟多士賞歎不已。公永歸之日，呼彼四子曰，‘先天後天，父子異時。吾歸王魂，汝在李世，既爲人臣，忠則竭力。’其爲清淨之節，何莫非理學正教。縉紳先生之過是墓者，孰不有感歎忠節者哉。建文二年白龍孟夏上澣，長水黃喜撰”(黃喜, 『墓表』,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84~191쪽).

45)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46) 申叔舟, 『黃喜墓誌銘』, 『國朝人物考』권1, 相臣, 황희.

47) 『고려사』권115, 李穡傳.

들에게도 실천덕목으로 계승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춘 박익의 정치·사회적 지향은 은둔과 출처를 통일적으로 파악한 이색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색의 출처관은 道의 실현여부라는 대원칙과 이를 실현하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참여할 때는 참여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선다는 공자적 출처관에 입각하였다. 이색은 고려왕조의 유지라는 대원칙을 방기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였다.⁴⁸⁾ 이러한 출처관에서 박익은 공양왕의 즉위 후 어느 시기 밀양지역에 낙향하여 1년 남짓 머물다가 정몽주 및 이색의 권유를 받아 공양왕 2년(1390) 말부터 3년 11월 사이 개경으로 돌아와 예조판서로 정치를 재개하였다⁴⁹⁾고 할 수 있다. 이 때 박익은 도덕의 실현과정으로 『禮記集說』을 중간⁵⁰⁾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 듯하다. 그러다가 박익은 정몽주가 살해되고 그의 정치세력이 크게 숙청된 공양왕 4년 4월⁵¹⁾이나 그 직후에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며 다시 밀양지역으로 낙향·은둔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박익은 그의 아들들에게 새왕조의 개창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당부도 하였는데, 이러한 입장 역시 그의 출처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은 성리학적 지식과 함께 불교지식 및 소양도 갖추고 불교계와도 교류하였다.

古寺鍾鳴落木間/ 옛 절 종소리 나무 사이로 떨어지고
山容解劫水聲寒/ 산 모습은 억겁 세월 물소리 차구나
應知客榻踟躕夜/ 응당 알리라 나그네 자리에서 결가부좌 한 밤
誦盡楞嚴意益開/ 『능엄경』을 모두 외워 뜻이 더욱 한가로운 줄⁵²⁾

박익은 불교계의 승려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시를 주는 한편, 사원을 방문하고 결가부좌하기도 하였으며, 더구나 『楞嚴經』을 외우는 등 불교계와 직접 교류하거나 상당한 교학적 지식과 소양도 갖추고 있었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대불정수능엄경』·『수능엄경』이라고도 하는 『능엄경』은 밀교사상과 禪宗사상을 설법한 대승경전으로, 불교사상과 더불어 성리학적인 사상체계도 이해할 수 있는 핵심경전이다. 송나라 때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의 형성과 이해과정에서 불교

48) 도현철, 앞의 책, 133~137쪽.

49) 김광철, 앞의 논문, 2002.12, 164~169쪽.

50) 『重刊禮記集說箋畧』,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58~160쪽.

51) 『고려사』권46, 공양왕 4년 4월 신묘·무오·갑자·을축.

52) 松隱, 『贈上人』,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20~121쪽.

의 禪思想과 관련된 『능엄경』을 주목하여 읽었다.⁵³⁾ 이러한 『능엄경』은 14세기 고려사회에서 간화선을 이해하는 데 깊은 영향을 주는 한편,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⁵⁴⁾ 이색과 정몽주도 『능엄경』과 간화선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⁵⁵⁾ 이런 점에서 박익도 성리학적인 사상체계와 더불어 간화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능엄경』을 외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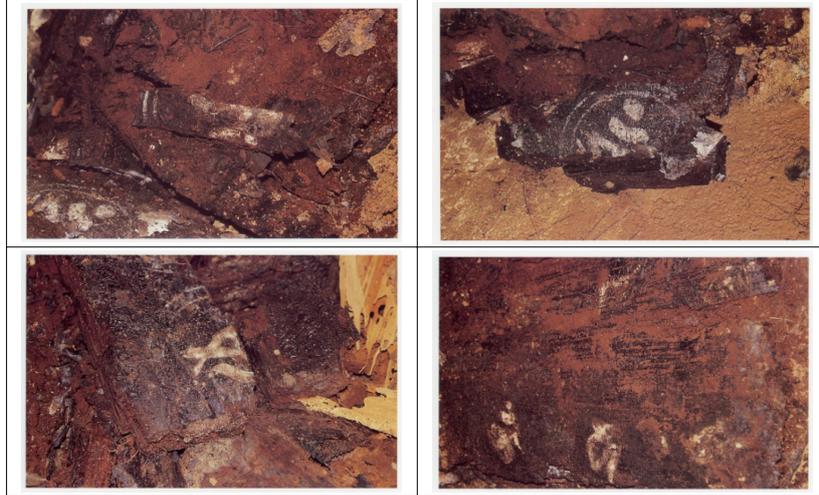
도 2. 박익 벽화묘 발견의 花紋石 및 도면⁵⁶⁾

53) 趙明濟, 『高麗後期 戒環解 楞嚴經의 盛行과 思想史的 意義』, 『釜大史學』12, 부산대학교, 1988, 129~135쪽.

54) 趙明濟, 앞의 논문, 164~167쪽.

55)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 연구』, 동국대학교, 1983, 310~315쪽; 鄭道傳, 『上鄭達可書』, 『三峰集』3.

56) 동아대학교 박물관,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 47·125~126쪽.



도 3. 박의 벽화묘 목곽의 梵字文 1·2⁵⁷⁾



도 4. 박의 벽화묘 목곽의 重圈文⁵⁸⁾

박의 불교를 일상적인 생활종교로 신앙하면서 성리학과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박의 벽화묘에서 발굴된 화문석에는 좌·우 측면에 연잎과 연꽃의 문양이, 정면에는 연자(연밥) 및 역근자의 문양이 각각 새겨져 있다. 이들 문양은 불교적 문양이며, 목관에 새겨진 梵字文과 重圈文에서도 불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⁵⁹⁾ 연꽃과 더불어 연밥에 들어 있는 연꽃 씨(연자)는 불교의 상징으로, 부처님, 깨달은 성인이나 군자, 청정무구, 극락정토, 윤회, 불생불멸, 재생과 환생 등을 의미한다.⁶⁰⁾ 이러한 불교적 상징과 의미를 담은 연꽃이나 연밥(연꽃 씨인 연자 포함) 등의 문양이 그의 벽화묘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벽화묘에서 발굴된

57) 앞의 책, 78~79쪽.

58) 앞의 책, 80쪽.

59) 앞의 책, 46~48·78~80·124~126쪽.

60)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 넥서스, 2004, 276~290쪽.

불교적 문양이나 요소는 박익과 그의 가족들이 생존 당시 생활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그들이 불교를 일상적인 생활종교로 신앙한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로써 박익은 성리학과 더불어 불교도 신앙하면서 유·불교 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은 仙道 내지 道教사상도 수용하였다. 박익은 노년에 그의 아들 4형제와 함께 密州의 鍾浦(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위치한 降仙臺에서 시를 읊었으며,⁶¹⁾ 박익의 묘에서 발견된 중국 동전이 도교적인 매지사상과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박익이 仙道 내지 도교사상도 탄력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익이 승려지식인 欽道에게 다시 준 시에서 ‘이야말로 세속도 선계도 아니네 그려(不是塵不是仙)’라고 하여 仙界를 표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太始’라는 그의 字에서도 박익이 도교사상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약한 때가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송계의 박태시를 기다리며(朴松溪(太始)期不至)’⁶²⁾라는 詩題에서 박익은 당시 문인지식인들에게도 太始라는 字가 불리지고 있었다. 이러한 박익의 字인 太始는 道家사상과 연관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太始 :

『易緯』의 『乾鑿度』에서 말한다. “太始란 것은 形의 시초 단계이다.”⁶⁴⁾

太易 :

『列子』에서 말한다. “무릇 유형이란 것은 무형에서 생겨난다면 곧 천지는 어떤 것을 따라 생겨나는가(자연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太易·太初·太始·太素가 있다. 태역이란 것은 氣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이다…태초란 것은 기의 시작 단계이다…태시란 것은 形의 시작 단계이다…태소란 것은 質의 시작 단계이다.”⁶⁵⁾

61) “惟我彫村翁，爲公作遺墟碑文，墟在密州鍾浦。而降仙之臺在其西。村翁野老，相傳以爲，‘五父子，杖屨觸於臺之上’公與此臺，其在千古也哉。三足居士 金大有 敬題”(金大有, 『書遺事後』,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205~212쪽).

62) 鄭義道, 앞의 논문, 370쪽.

63) 二憂堂 李瓊, 『朴松溪(太始)期不至』,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133~134쪽.

64) “太始：易乾鑿度曰，太始者，形之始也”(百家諸子 Chinese Text Project/太平御覽/天部一/太始：http://ctext.org).

65) “太易：列子曰，夫有形者生於無形，則天地安從生(自然而生)。故有太易·太初·太始·太素…太易者未見氣也…太初者氣之始也…太始者形之始也…太素者質之始也”(百家諸子 Chinese Text Project/太平御覽/天部一/太易：http://ctext.org).

太始라는 용어는 전국시대에 살았던 列子가 지은 道家사상의 저술서인 『列子』와 더불어 한나라 때 鄭玄이 지은 『易緯』의 『乾鑿度』에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太始라는 용어는 『列子』에서 太易·太初·太素와 함께 道家의 핵심 용어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太始는 도교사상과 연관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⁶⁶⁾ 이처럼 도교 용어인 太始를 박익이 자신의 字로 삼은 사실은 박익이 仙道 내지 道教사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박익은 도교 내지 선도사상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박익의 사상적 성격은 성리학적인 지식과 소양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불교 및 道家(仙道)사상까지 수용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박익의 유·불적 지식과 소양은 儒佛同道·儒佛同源이라는 입장을 가진 이색이나 당시 유학자들과 연관관계를 가진다⁶⁷⁾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익의 유·불·선에 대한 이해도 유교·불교·도교의 핵심사상을 비교하고 결국 이치가 하나라는 元天錫의 삼교일리론⁶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송은 박익은 배타적인 성리학적 지식인이 아니라, 성리학적 입장에서 유·불, 또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탄력적 문인지식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송은 박익의 인적 연계망과 더불어 사상을 진단하였다. 박익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관찬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원천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松隱先生文集』 및 『國譯 松隱先生文集』, 그리고 2000년 10~11월 발굴된 박익의 벽화묘와 관련 유물·유적을 정리한 조사보고서(동아대학교 박물관,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에서는 그의 활동·행적 및 사상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자료

66) 중국어 전자백과사전류(微百科 : <http://fenlei.baik.com>)에서도 太始를 “太始, 道家哲學中代表有形無質, 非感官可見, 開天辟地前的原始宇宙狀態”이라 하여 道家사상과 관련된 용어로 파악하고 있다.

67) 도현철, 앞의 책, 179쪽.

68) 都賢喆, 『元天錫의 顔回的 君子觀과 儒佛道 三教一理論』, 『東方學志』111, 연세대학교, 2001; 앞의 책, 179~180쪽.

를 활용하여 그의 인적 연계망과 사상적 성격을 진단해 볼 수 있었다.

그의 직계 집안은 아버지 박영균 때 이미 중앙관료를 역임하면서 수도 개경에 거주하였으며, 박익 때부터는 과거급제를 통해 문인관료로 활동하였다. 박익과 그의 사촌 동생 桃隱 朴文彬은 조선왕조의 개창을 반대하며 밀양지역에 은거하였으나, 박익의 아들 4형제는 성리학적인 소양을 갖춘 문인지식인으로, 그의 유언에 따라 조선왕조에서 관료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익의 직계는 다양한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박익의 외가와 처가 가운데는 綾城具氏·屋山裴氏와 같이 고려말기부터 이미 중앙의 고위관료를 배출한 명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집안 가운데는 조선왕조의 개창에 적극 참여하여 개국공신으로 활동한 관료도 있었고, 문인지식인도 상당수 있었으며, 杜門洞으로 은거하여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킨 문인지식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의 사위 대부분도 문인지식인이었다.

박익은 문학적·사상적 교류를 전개하면서 다양한 인물들과 정치·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는 생존 당시 鄭夢周(圃隱)·李穡(牧隱)·吉再(治隱)·李在弘(桐隱)·李瓊(二憂堂)·朴宜中(貞齋)·卞季良(春亭)·卞仲良(春堂)·李原(容軒) 및 金九容(惕若齋)·李崇仁(陶隱)·朴文彬(桃隱) 등과 같은 관료·문인지식인, 李之蘭과 같은 무인, 上人(법명 미상)·道欽 등의 승려지식인들과 정치·사회적인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문인지식인들은 대부분이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몽주·이색의 문인이거나 정몽주·이색·길재와 학문적 성향과 사상적 견해가 밀접하였다. 이들 교류 인물 가운데는 정몽주·이색·길재·이승인·이재홍·이경과 같이 고려왕조에 끝까지 절의를 지킨 성리학적 문인지식인들도 있으며, 박익중·변계량·변중량·이원·이지란처럼 고려왕조를 이어 조선왕조에서도 계속하여 관료로 활동하거나 조선왕조의 개창에 적극 참여한 개국공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익은 이들 인물 가운데 정몽주·이색과 가장 밀착되어 있었다. 이로써 박익은 사회적 관계에서 탄력적이면서도 현실정치에서 개혁적 지식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익의 학문과 사상은 현실적으로 성리학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당대 성리학적인 위상은 지나치게 평가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리학의 祖宗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박익은 성리학적 지식과 소양을 자신의 정치·사회적인 실천덕목으로 삼는 한편, 자신의 아들에게도 계승하였다. 박익은 성리학적인 실천덕목으로서의 정치·사회적 지향은 은둔과 출처를 통일적으로 파악한 이색과 일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덕목으로 박익은 공양왕 때 관직진출과 낙향을 반복하면

서도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며 조선왕조의 관직생활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박익은 성리학적인 사상과 더불어 불교 및 도교(仙道)까지 이해하고 수용하였으며, 이들 사상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박익의 불교적 관심은 불교의 禪思想에서 영향을 받은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생활종교로 신앙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의 유·불적 지식과 소양은 儒佛同道 및 儒佛同原이라는 입장을 가진 이색이나 당대 상당수의 유학자들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박익의 유·불·선의 이해도 元天錫의 삼교일리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된다. 이처럼 박익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유·불, 또는 유·불·도를 아우르는 탄력적 문인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 경향은 정몽주나 이색과 상당 부분 유사하기도 하였다.

■ 투고일 2014년 7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0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6일 ■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

『대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三峰集』

『李原碑銘』

『黃喜墓誌銘』

『國朝人物考』

『국역 국조인물고』(<http://terms.naver.com/entry>)

『國朝文科榜目』

朴世臣 외, 『松隱先生文集』, 1839.

『府尹先生案』(『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嶺南文集解題』(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資料叢書』4,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國譯 松隱先生文集』, 報本齋, 1999.

『디지털칠곡문화대전』(<http://chilgok.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百家諸子 Chinese Text Project/太平御覽(<http://ctext.org>)

微百科(<http://fenlei.baik.com>)

<논저>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 연구』, 동국대학교, 1983.

趙明濟, 『高麗後期 戒環解 楞嚴經의 盛行과 思想史的 意義』, 『釜大史學』 12, 부산대학교, 1988.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김영재, 『박익 묘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韓服文化』4-4, 한복문화학회, 2001.

都賢喆, 『元天錫의 顔回的 君子觀과 儒佛道 三教一理論』, 『東方學志』

- 111, 연세대학교, 2001.
- 曹五順·劉珠利, 『密陽 古法里 古墳壁畫에 나타난 服飾 研究』, 『패션비즈니스』5-2,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1.
- 고부자, 『密陽 朴翊 墓 壁畫 服飾 研究』,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김광철, 『여말선초 松隱 朴翊의 생애 : 조선건국기 낙향인물의 한 사례』, 『考古歷史學志』17·18,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여말선초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동아대학교 박물관, 『密陽古法里壁畫墓』, 2002.
- 안희준, 『松隱 朴翊 墓의 壁畫』, 『考古歷史學志』17·18,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密陽古法里壁畫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박홍갑, 『朝鮮初期 密陽 在地勢力의 淸道移住와 定着過程 : 密陽朴氏 嘯臯公派를 중심으로』, 『백산학보』70, 2004.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 넥서스, 2004.
- 李英子, 『密陽 古法里 壁畫를 통해 본 茶禮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홍갑, 『瓶齋 朴河澄研究』, 경인문화사, 2006.
- 김재현, 『밀양지역의 분묘문화 : 고법리벽화묘를 중심으로』, 『石堂論叢』3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 鄭義道, 『松隱 朴翊先生墓 出土遺物의 考古學的 解釋』, 『先史와 古代』33, 한국고대학회, 2010.
- 도현철,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혜안, 2011.
- 이동주, 『밀양 고법리 벽화묘에 대한 연구』, 『文物研究』19,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Human Network & Ideological Nature of the Bak Ik(朴翊)

Choi, Young-Ho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into the human network & ideological nature of the Bak Ik(1332~1398). the core text of this paper was utilized as 『the miscellany of Songeun』 the he had written, and ruins & artifacts that were discovered in his tomb's mural-paintings(壁畫墓).

His Jaho(字號) was called the Songeun(松隱) & Taesi(太始), he was active as the literary intellectual from the Koryo(高麗)-Dynasty's end to the early Joseon(朝鮮)-Dynasty. he was active as a bureaucrat in the Koryo-Dynasty, but was denied the offices in the Joseon-Dynasty. he kept a honor in the Koryo-Dynasty to the last. in the course of his activities, he build a social network. first, his wife kinsmen & maternal family were also included in a clan that was already grown the senior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Koryo-Dynasty's end. next, his political & social familiar figures were included in the literary intellectual & the soldier-offices & the Buddhist-intellectuals. among the figures, he was most familiar with the Jung Mongjoo(鄭夢周) & the Lee Saek(李穡) & the Gil Jae(吉再). his familiar figures were included in the Neo-Confucianism(性理學) & Buddhism intellectual who kept a honor in the Koryo-Dynasty. on the other hand, they were included in the offices who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Dynasty.

He noted to the Neo-Confucianism in practical politics. his phase of that coeval was evaluated as the founder of the Neo-Confucianism, like the Jung Mongjoo & the Lee Saek. in addition, he also embraced the Buddhism(佛教) & the Taoism(道教). in this fact, his the academic & ideological tendency was like with the Jung Mongjoo & the Lee Saek & the Gil Jae. therefore, he can be evaluated by the flexible literary

intellectual who comprehensively embraced these ideas.

Key Words : Bak Ik(朴翊), Songeun(松隱), Taesi(太始), the miscellany of Song-eun, tomb's mural-paintings(壁畫墓), Neo-Confucianism(性理學), Buddhism(佛教), Taoism(道教), honor(節義), Jung Mongjoo(鄭夢周), Lee Saek(李穡), Gil Jae(吉再)